홍대서 히말라야까지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

저스트비 홍대선원, 개원 3주년
'히말라야 프로젝트' 원력 눈길
게스트하우스·160km 순례길 복원
준한 스님 "새로운 문화교류 실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홍대선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아 네팔 포카라에 명상 게스트하우스를 개원하고 싯다르타 순례길을 복원하는 '저스트비 히말라야'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사진은 저스트비 템플 히말라야에서 바라본 전경.

젊음의 거리 홍대 인근에 '글로벌 수행 놀이터'를 모토로 문을 연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개원 3주년을 맞았다. 기존 불교 포교와는 다른 시도들로 어느새 '힙'한 불교의 모델이 된 홍대선원이 이번엔 네팔 히말라야에 최초 한국 사찰 건립 염원이 담긴 '저스트비 히말라야 프로젝트' 원력을 세워 또다시 '힙'한 불교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2022년 9월, 젊음의 활기가 넘쳐 흐르는 홍익대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겸 한 열린선원으로 개원한 홍대선원은 종교를 떠나 한 해에만 40여 개국, 약 6000명이 다녀가는 다문화 도량이다. 홍대선원은 불교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로부터 주목받으며 지난 3년간 기존 불교 포교와는 다른 층위의 시도들로 눈길을 끌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행사는 물론이고 저스트비 3000배 클럽, 대학생 사찰 인턴쉽 '행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심 포교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

특히 출가했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와 인턴의 합성어 '행턴'은 한국불교계 최초의 '대학생 사찰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로 화제를 모았다. 사찰 운영과 불사 기획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사찰공동체 안에서 수행과 신행을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1기 행턴에는 국내외 대학생 6명이 참여했고 2기에는 30대 청년과 외국인도 포함됐다. 지난달까지 4기가 운영됐다.

3000배 클럽 역시 매달 스스로 3000배 수행을 약속하고 지켜냄으로써 자신을 믿는 '마음의 힘'을 키워냈다는 점에서 절 수행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불교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3주년을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최초 한국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저스트비 히말라야 프로젝트'로 포교 원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은 히말라야 트래킹의 시작점과 같은 포카라. 준한 스님은 "출가한 지 10년 되던 해 차마고도를 거쳐 안나푸르나, 인도까지 18개월간 트래킹을 하던 중 네팔 포카라에 도착했을 때 감동을 잊지 못한다"면서 "대자연 속에서 깊은 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이 탄생한 설산에 아직 우리나라 도량이 없어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준한 스님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안나푸르나에 '명상 게스트하우스'를 개원하고 순례길을 조성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성지순례와 더불어 히말라야 등반을 위해 포카라를 찾았을 때 편히 머물며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준한 스님의 설명이다.

'저스트비 히말라야 프로젝트'는 한국 불교 첫 도량과 함께 마을을 조성하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히말라야를 잇는 163km 옛 순례길을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 시작이 될 도량인 저스트비 템플 히말라야는 현재 대략적인 모습을 드러내 9월 28일 미륵보살 점안식이, 11월 7일 약사여래불 점안 및 고불식이 봉행될 예정이다.

준한 스님은 "궁극적으로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국과 네팔의 새로운 문화교류 모델을 실현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한바탕 꿈속에 깨달음의 큰 궁전, 적멸보궁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불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스트비 홍대선원은 개원 3주년을 맞아 9월 6일 오후 3시부터 선원 내에서 기념파티를 개최한다. 선태극권과 핸드팬 체험을 시작으로 오후 10시까지 특별 공연, 케이크 커팅, 선물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명상 사찰 11곳 추가…1시간 과정 등 운영

직장인 위한 기본·심화 선명상
5분·걷기·호흡 등 체험 다양해



사진='선명상' 홈페이지 캡쳐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명상문화 확산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찰·기관이 확대됐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는 최근 '선명상' 공식 홈페이지에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찰·기관으로 선정된 11곳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로써 올해 7월 선정된 31곳을 포함해 총 전국 42곳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사찰·기관은 고창 선운사와 경주 감산사, 서울 길상사, 서울 석불사, 충주 석종사, 봉화 축서사, 서울 홍대선원, 광주 정혜사,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용인 보덕 관음사, 세종 영평사다. 홈페이지에는 각 사찰의 소개와 프로그램 일정이 안내돼 있다.

미래본부는 앞선 8월 20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에서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사찰(기관) 지도자 교육'을 열고, 새로 지정된 사찰의 지도법사와 재가실무자들에게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전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찰은 지역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심 사찰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1시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5분 명상·차 한잔 명상·호흡 명상·걷기 명상으로 구성된 '기본 선명상'과 좌선과 화두를 체험하는 '심화 선명상'으로 구성됐다.

1시간 선명상 프로그램은 석불사, 감산사, 길상사, 보덕 관음사, 석종사, 선운사, 영평사, 정혜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선명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익히고 싶은 이들을 위한 '선명상 입문 4주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감산사, 석불사, 보덕 관음사, 정혜사, 영평사에서 진행되며, '선명상이란 무엇인가' 등 기본 이해부터 올바른 선명상 자세, 호흡법, 일상 실천 방법, 선명상의 과학적 효능까지 익힐 수 있다.

단기간 집중적인 선명상 체험을 원하면 '입문 2박 3일 선명상'을 선택하면 된다. 석종사, 축서사, 한국문화연수원가 운영하며, 짧은 기간 동안 4주 과정에 준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배운다.

김내영 기자

70돌 중앙신도회 "올 가을은 시민과 함께"

9월 20일 광화문서 선명상 페스타
9월 8일 나주서 제1회 골프대회
9월 27일 구미서 파크골프대회도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가을 전국에서 국민통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각양각색의 야단법석을 펼친다. 종단 주요 종책사업인 선명상 대중화를 비롯해 포교영역 확대와 교구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한국불교 중흥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중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다. 9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선명상 페스타'**는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즐기며 선명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다. 2013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행복바라미 사업을 개최해 온 중앙신도회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불자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고 한국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선명상을 비롯해 대중적인 불교 콘텐츠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구 신도회 활성화와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법석도 마련된다.

먼저 조계종 총무원장배 골프대회가 최초로 열린다. 9월 8일 오후 1시부터 나주 중흥 골드레이크CC에서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골프 대회'**가 개최된다.

조계종 포교부와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제22교구본사 대흥사와 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골프대회는 각 교구본사 신도회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교구 내 불자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대중 스포츠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 대회도 열린다.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파크골프 대회'는 9월 27일 오전 8시부터 구미 동락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와 신도회가 주관하며 4인 1팀 단일 종목으로 80개팀 3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대회가 각 교구본사 신도회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교구별 불자 파크골프 동호회가 구성돼 불자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이 강화되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포교영역을 확장하고 전국불자들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8월 23일 구례 화엄사 사성암에서 개막한 **'2025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는 9월 20일까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이어진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앙신도회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며 불교문화를 알리는 한편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선운사·내소사, 동국대에 2000만원

8월 27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전북 출신 재학생 등 20명에 수여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교구 사찰인 내소사가 동국대에 장학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8월 27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115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와 소속 말사인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가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전북 지역 재학생과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 회원 총 20명에게 수여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 인연의 지중함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감사 편지를 읽어봤는데 한 학생이 '선운사·내소사 주지 스님 얼굴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인연인가요'라고 했는데 답은 '부처님 인연'이다"라며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기에 조계종립 동국대에 입학한 것이고, 공과대학 불교동아리에 입부해 선운사·내소사 장학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부처님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라며 "동국인으로서, 청년불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행하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제4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기 간 : 2025년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1주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6시)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